

[P1 - 10]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분석한 한국전통식의 음식섭취 현황

문현경, 강현희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dish intake using 1998 Korea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Moon Hyun-Kyoung, Kang Hyun-H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현재 우리나라 식생활은 급격한 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음식섭취 현황을 파악하여 식생활의 서구화 정도에 대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한국전통식 섭취 여부를 식생활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수준별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10,400명에 대한 식품섭취조사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소득수준에 따른 음식 유형별 섭취빈도를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음식유형은 음식의 재료 및 조리법에 따라 한국 전통식, 동양식, 서양식, 한국절충식, 동양절충식, 서양절충식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1998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빈곤선(2000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설정에 사용된 가구 균등화지수)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수준 그룹 간 음식 유형별 통계적 유의성 검증($p < 0.001$)을 위하여 χ^2 -test 하였다. 전체적으로 10,400명이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 111,656 가지 중 한국전통식이 86,755가지(77.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양식이 2,983가지(2.67%), 동양절충식이 3,638가지(3.26%), 동양식이 2,983가지(2.67%), 한국절충식이 2,008가지(1.80%), 서양절충식이 747가지(0.6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음식 가지 수는 저소득층이 21,769(19.50%), 중간소득층이 45,645가지(40.88%), 고소득층이 44,242가지(39.62%)로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섭취하는 음식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 < 0.001$)를 보였다. 소득수준별 한국전통식의 음식 가지 수는 저소득층은 11,705가지(81.33%), 중간소득층은 35,282가지(77.30%), 고소득층은 33,768가지(76.33%)로 저소득층이 한국전통식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서양식은 저소득층이 2,429가지(11.16%), 중간 소득층이 6,394가지(14.01%), 고소득층이 6,702가지(15.15%)로 고소득층이 서양식을 많이 섭취함을 알 수 있었다. 동양식은 저소득층이 453가지(2.08%), 중간소득층이 1,307가지(2.86%), 고소득층이 1,223가지(2.76%)이고, 한국 절충식은 저소득층이 354가지(1.63%), 중간소득층이 833가지(1.82%), 고소득층이 821(1.86%)이고, 동양절충식은 저소득층이 672 (3.09%), 중간소득층이 1,549가지(0.61%), 고소득층이 1,417가지(3.20%)이고, 서양절충식은 저소득층이 156가지(0.72%), 중간소득층이 280가지(0.61%), 고소득층이 311가지(0.70%)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저소득층은 섭취하는 음식의 가짓수를 고소득층보다 적으나, 한국전통식의 섭취비율은 높았다. 저소득층에서 한국전통식의 섭취는 음식가짓수, 비율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은 섭취하는 음식의 숫자는 많으나, 한국전통식의 비율은 낮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한국전통식이 즉, 한국식 재료와 조리법의 사용이 음식에 주로 사용되나, 외국의 재료와 조리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것은 고소득층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변화의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